

경애하는 김정은 최고령도자께서 평양시의 여러 곳을 현지지도 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완공을 앞둔 창전거리를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먼저 만수대지구전경도앞에서 해설을 들으신 다음 여러 석당들과 상점들, 지하에 배치되어 있는 각종 매대들과 주차장 등을 돌아보시면서 창전거리건설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건축 면적 2,790㎡에 달하는 특색있게 건설된 해맞이식당에 들리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식당의 여러 곳을 돌아보시면서 설계와 시공을 잘했다고 평가하시며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각이 한 형식으로 건설된 종구역종합식당과 은정차장을 비롯한 여러 석당들도 돌아보시면서 석당의 크기와 비율, 장식 및 통풍정형 등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지하에 건설된 기념품매대와 약품매대, 축탑매대, 사진판, 주차장을 돌아보시면서 특색 있게 잘 건설했다고, 건설에서는 지상파지하공간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립체적으로 리용하는가 하는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창전거리의 여러 봉사망들의 간판도안들도 일일이 보아주시면서 평양미술대학에서 내놓은 해맞이식당의 간판도안이 잘되었다고 평가하시였으며 도안들을 더 잘 완성할 수 있는 방도를 가르쳐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창전거리는 설계도 잘되고 시공도 높은 수준에서 보장되였다고 다시금 높이 평가하시면서 건설자들이 최후돌격전을 벌려 5월말까지 건설을 마무리하고 6월 중순에는 인민들이 새집들이를 할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창전거리를 돌아보시면서 수도 평양을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게 더욱 옹장화려하게 꾸려나가는데서 지침으로 되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개선청년공원유희장을 돌아보시면서 관리운영정형을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유희장의 여러 곳을 돌아보시면서 관리운영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어버이장군님의 체취가 습배여있는 유희설비들의 가동정형을 자세히 알아보시고 유희장이 더없이 정갈하고 깨끗하며 정상관리도 잘되어있다고 치하하시였다.

회전 그네 앞에 이르신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이 기재가 제일 인기가 있다고 하시면서 지난해 어버이장군님을 모시고 왔을 때 자신께서도 태어났다고 말씀하시였다.

급강하탕, 3중회전반, 배그네, 관성비행차들의 운영정형도 료해하시고 전자오락판에도 들리신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인민들이 어느 기재를 더 좋아하는가 다정히 물어주시며 새로 건설되는 트라이민유원지에도 회전그네와 전자오락기재들을 놓아주자고 말씀하시였다.

밀쌈매대로 다가서시여 봉사원에게 수고한다고, 오늘은 무엇을 판매하는가를 물어주신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매대 안에 있는 약수병의 질도 가늠해보시고 매대 안도 유심히 살펴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유희장구내에 자리잡고있는 개선빵집도 찾으시였다.

개선청년공원유희장의 일군들이 인민에 대한 협진적인 복무정신을 지니고 근로자들과 청소년 학생들이 마음껏 휴식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수 있도록 유희시설들에게 대한 가동을 정상화하고 있으며 여러 봉사망들에 대한 운영을 잘하고 있는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인민의 문화휴식터로 훌륭히 전변된 개선청년공원유희장 관리운영에서 나서는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개선청년공원유희장과 해당 부문의 일군들이 인민의 참된 복무자로서의 영예로운 사명과 임무를 다해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고 그들과 함께 사랑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중앙동물원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류경원은 어버이장군님께서 특별히 관심하시던 대상이라고 하시면서 류경원이 완공되면 장군님의 유훈을 또 하나 관찰할수 있게 된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류경원은 건축형식과 내용이 새롭고 특색이 있을뿐 아니라 설계로부터 시공에 이르기까지 모든것이 높은 수준이라고 평가하시면서 군인건설자들이 말려진 건설공사

를 전승절까지 완공하여 인민들에게 안겨주어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류경원을 우리식의 현대적인 위생문화편의 기지, 주체건축예술의 기념비적 창조물, 공공건물의 본보기의 하나로 훌륭히 일떠세움으로써 나라의 곳곳에 창평원식 목욕탕을 건설하여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에서 전면을 가져오시려고 마음씨오신 어버이장군님의 한생의 염원을 풀어드리자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이어 동물원의 여러 곳을 돌아보시면서 관리운영 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수족관에 들리시여서는 꼬리치며 유유히 오가는 민물철갑상어와 흰붕어 등을 주의깊게 보시면서 물고기를 기르는데서 재기되는 것은 없는가, 먹이 및 물보관대책은 어떻게 세워져있는가, 어떤 종류의 바다물고기의 기르는가를 알아보시였다.

당의 은정속에 먹이보장대책이 철저히 세워져있고 남포-평양사이의 바다물수송체계가 완공됨으로써 바다물고기를 기르는 데서 애를 먹고있던 물문제가 풀리게 되었다는 동물원 일군들의 보고를 만족하게 들어주시였다.

물개놀이장과 파총관을 돌아보시면서 동물사를 꾸리는데서 중요한것은 자연에 대한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여 사람들에게는 직관성과 생동성을, 동물들에게는 충분한 생육조건을 보장해주는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인민야외빙상장도 우리당이 인민들에게 안겨주는 선물이라고 하시면서 류경원과 함께 전승절까지 마무리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어버이장군님의 인민사랑의 결정체이며 인민의 향유물인 인민야외빙상장을 하루빨리 완공하여 인민들이 이용하게 함으로써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더욱 높이 발양시켜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개선청년공원유희장을 돌아보시면서 관리운영정형을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유희장의 여러 곳을 돌아보시면서 관리운영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어버이장군님의 체취가 습배여있는 유희설비들의 가동정형을 자세히 알아보시고 유희장이 더없이 정갈하고 깨끗하며 정상관리도 잘되어있다고 치하하시였다.

회전 그네 앞에 이르신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이 기재가 제일 인기가 있다고 하시면서 지난해 어버이장군님을 모시고 왔을 때 자신께서도 태어났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어버이장군님의 체취가 습배여있는 유희설비들의 가동정형을 자세히 알아보시고 유희장이 더없이 정갈하고 깨끗하며 정상관리도 잘되어있다고 치하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유희장과 함께 아동백화점과 실립집들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유희장과 함께 아동백화점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1층으로부터 3층에 이르는 아동백화점의 여러 곳을 돌아보시면서 전설정형을 료해하시였다.

건설자들이 아이들을 나라의 왕으로 내세워주시고 세상에 부럼없이 자라나도록 하기 위해 언제나 마음씨오신 위대한 수령님과 어버이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심장에 새기고 짧은 기간에 방대한 건설공사를 성과적으로 끝낸데 대하여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개선청년공원유희장과 함께 아동백화점의 우리 아이들을 제일로 사랑하신 위대한 수령님과 어버이장군님의 동상이 모셔진 만수대언덕과 면한 명당자리에 자리잡고있다고 하시면서 백화점관리운영에서 나서는 귀중한 가르침침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이어 창전거리에 새로 일떠선 실립집들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장시간에 걸쳐 창전거리 6호동과 1호동의 여러 실립집들을 돌아보시면서 전설정형을 구체화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먼저

백두산3대 장군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만족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창전거리 6호동 다동의 45층 1, 2, 3호, 나동의 2층 2, 3호, 1호동 2현관 20층 2호, 17층 1호의 살림집들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각이한 형식으로 건설된 여러 살림집들의 내부를 돌아보시며 살림방의 크기와 부엌가시대의 쓰레, 창고의 통풍정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살림집들의 내부가 주민들의 가정생활에 편리하게 잘 꾸려졌다고 하시면서 우리인민들에게 보다 훌륭한 살림집들을 또다시 안겨줄수 있게 된데 대하여 기쁨을 금치 못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45층과 20층 베란다에서 응장화려하게 전변된 창전거리의 전경을 바라보시며 짧은 기간에 이처럼 훌륭한 살림집들을 일떠세운것은 대단한 성과라고 하시면서 건설자들의 수고를 거듭 치하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새로 일떠선 창전거리 살림집들을 돌아보시고 수도 평양을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게 꾸려나가는데서 지침으로 되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창전거리에 새로 건설된 창전소학교, 경상탁아소, 경상유치원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창전소학교를 돌아보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과 어버이장군님을 빼움을 경에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45년동안 동물원에서 근무하고있는 맹수작업반 반장 김순옥과 근 30년동안 곰관리공으로 일하고있는 명수일을 만나시고 범과 사자, 곰, 과태지, 승냥이들의 동물학적특성을 하나하나 물어주시면서 자기 직업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성실한 땀을 바치고있는 그들의 수고를 치하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이날 어버이장군님의 발기에 의해 꾸려진 수의 병원에도 들리시여 동물들에게 대한 수의방역 및 치료대책을 잘 세우는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중앙동물원은 나라의 재부이며 선군시대와 더불어 길이 전하여 질인민의 문화정서생활거점이라고 하시면서 관리운영에서 지침으로 되는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동물원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앞으로도 인민의 복무자로서의 영예로운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학교가 건설종이여서 학생들은 지금 어디서 공부하고있는가를 물어주시고 학생들의 네化进程과 키에 맞게 잘 만들었다고 치하하시였다.

외국어학습실과 컴퓨터학습실에 들리시여서는 이만하면 팬찮다고 기뻐하시였으며 넓고 시원한 강당에 들리시여서는 교원들과 학생들이 좋아할것이라고 못내 만족해하시였다.

운동장을 보자고 하시며 떠나시던 걸음을 돌리신 경에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책걸상은 어디서 만들었는가를 물어주시고 학생들의 네化进程과 키에 맞게 잘 만들었다고 치하하시였다.

학교가 건설종이여서 학생들은 지금 어디서 공부하고있는가를 물어주시고 다정히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곧 학교문을 열고 공부를 시작하게 된다고 보고를 들으시고 그때 다시 오시겠다고, 학생들이 공부하는 모습을 꼭 보시겠다는 사랑의 약속을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경상탁아소를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탁아소의 여러 곳을 돌아보시면서 전설정형을 료해하시였다.

첫 번째 2반에 들리신 경에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동기조건에서도 어린이들을 잘 키울수 있게 방안온도를 보장할수 있는가를 알아보시고 벤란다창문으로 바람이 스며들지 않겠는가를 가늠해보시였다.

밥먹는 방에 들리시여 품소 바닥을 짚어보시고 아이들을 따뜻한 온돌방에서 밥을 먹이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하시였다.

여러 교양방과 지능놀이실을 돌아보시면서 비品德과 시설물들을 어린이들의 심리에 맞게 커뮤니케이션하고 꺽꺽하게 배치하고 꾸려놓았다고 말씀하시였다.

교양1반의 신발장도 품소 열어보시고 잠방의 침구류들도 살펴보시면서 훌륭한 시설에서 무려 무려 자라날 아이들의 행복친목 모임을 꼭 보시겠다는 듯 환하게 웃으시였다.

물놀이장에 들리시여서는 어린이들의 동심과 육체적 조건에 맞게 꾸려놓았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조국의 미래인 아이들을 잘 키우기 위한 사업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고 하시면서 경상탁아소의 보육원들이 어린이들을 친어머니의 심정으로 따뜻이 보살펴주어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경상유치원을 돌아보시였다.

유치원 운동장에 들어서신 경에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운동장은 어린이들이 뛰어놀 장소이기 때문에 전면포장을 하면 놀음에 정신을 팔던 아이들이 다칠수 있다고 하시면서 원형식으로 특지를 만들어주라고 이르시였다.

운동장에 설치된 놀이기재들을 보신 경에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배그네를 비롯한 기재들을 보내주셨으니 색이 맞게 더 설치해놓으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연혁소개실을 돌아보시였다.

은하수관현악단 지휘자 리명일을 비롯하여 이곳 유치원을 다닌 재능있는 예술인들의 사진도 일일이 보아주신 경에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성공하여 훌륭한 인재가 되기를 바란다는 어버이장군님의 친필서한을 받은 마신아어린이와 유별미어린이도 이곳을 다녔다고, 그동안 음악인 동들을 많이 배출했다고 하시며 교양원들의 수고를 제시하시였다.

여러 나라의 수많은 음악인동들이 참가한 제9차 도스코바 국제축전에서 경상유치원 기자4종주단 어린이들이 당의 품속에서 마음껏 꽂고운 예술적재능을 펼쳐보이고 대파문을 일으킨데 대한 자랑도 기쁨속에 들어주시였다.

2층 놀이장에 들리

나라와 민족마다 자기가 갈 길을 선택할 권리, 그 길을 개척해 나가는 방식이 있다.

우리 민족은 절세위인들을 높이 모시여 자주의 길, 선군의 길, 사회주의의 길을 걸어왔다. 새로운 주체 100년대가 시작되는 역사의 분수령에서 운명개척에서의 경이적인 사변들로 수놓아진 지나온 주체 100년사를 더듬어보는 온 겨레는 강성하고 부흥할 때일도 오직 그 길에 있다는 진리를 더더욱 가슴뜨겁게 절감하고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 최고령도자께서는 자주의 길, 선군의 길, 사회주의의 길을 따라 곧바로 나아가는 여기에 우리 혁명의 백년대제의 전략이 있고 종국적승리가 있다라고 하셨다.

자주는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김정일장군님의 정치활동의 신조였고 근본원칙이었다. 우리가 혁명을 하는 것은 그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기의 신념에 따라 하는만큼 누가 뛰어든 하든 우리 식대로 살아나가야 한다는 것이 수령님의 령도활동의 초석이고 좌우명이었다. 항일대전의 날이나 해방후 새 조국건설때에 그리고 전후복구건설과 사회주의건설의 전로정에서 시종일관 자주성의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신 수령님이시였다.

모방과 추종의 바람을 타고 모스크바에 비가 와 사람들이 우산을 들고나서면 배틀린이나 부다페스트에서는 비가 내리지 않아도 우산을 들고나렸다는 풍문이 세계를 휩쓸 때에도 우리 인민은 어버이수령님의 선결지명의 턱일한 평도밀에 자기가 선택한 길에서 한걸음의 동요나 탈선을 모르고 자주의 길을 끊임이 걸어왔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기성리론이나 기존방식에 구애됨이 없이 모든 것을 자주적립장에서 대하시며 창조와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우리 나라의 실정과 우리 인민의 요구와 리익에 맞게 창조적으로 풀어오시였다.

우리 식대로 살아나가라, 우

민족의 래일을 본다

리 식대로 투쟁하라, 우리 식대로 창조하라는 주체의 가치높이 자주적립과 창조적립장을 확고히 고수하고 구현하도록 하신 장군님이시였다.

선군은 자주이고 존엄이다. 선군으로 높이 든 총대는 정치적 자주권의 상징이다. 강한 군력에서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는 독자적인 주권과 결집도 생기고 그 어떤 압력이나 제재에도 굽하지 않는 배짱과 결단도 나온다. 총대이자 국권이고 선군이자 자주인 것이다. 지난날 우리 민족은 자기를 지킬 힘이 없었던 탓으로 사태와 망국을 숙명처럼 감수해야만 했던 비참한 식민지 약소민족이였다. 제국주의의 전횡이 란무하는 오늘에도 힘이 없으면 자기를 지킬 수 없고 흐르는 눈물을 주먹으로 닦을 수밖에 없다. 강력한 총대우에 당당한 자주정치가 있고 발전과 부흥이 있다.

선군은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한평생 높이 추��하신 애국의 제일보검이다.

민족자주권을 개척하고 이끌어오는 길에서 총대의 귀중함을 언제나 깊이 새겨안고 계신 수령님께서는 수십 성상 군력 강화에 최우선적인 힘을 기울이셨다. 선군으로 미일 두 제국주의 침략세력을 타승하시여 민족의 운명을 구원하고 나라의 자주권을 수호하셨다. 혁명을 하자니 한평생 군인으로 살수밖에 없다고 하신 어버이수령님의 선군의지 그리고 조국을 읊으면 살아도 죽은 목숨과 같다. 망국노가 되지 않으려거든 나라를 지키라고 하신 그이의 간곡한 당부는 지금도 선군의 길에 메아리치고 있다.

수령님의 선군사상, 선군에 국위업을 빛나게 계승하신 장군님께서는 선군의 기치를 더욱 높이 추��드시고 수십 성상 탄월한 군�建설사상과 정력적인 형



열병대오에 답례를 보내시는 경애하는 김정은 최고령도자

도로 나라의 군력을 백방으로 강화로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지키화하였다.
선군장정의 기나긴 세월 탄월과 업적은 오늘도 겨례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있다.

본다

력사의 온갖 도전을 맞받아나가면 반드시 승리의 날을 맞이하게 될것이라고 하신 장군님의 가르침은 민족자주권의 승리를 위한 겨례의 귀중한 좌우명이다.

그이의 선군령도에 매혹된 군출신이며 다년간 국가회의 대의원으로 활동한 로씨야의 정객 이완 쥬다까예브는 김정일령도자의 선군정치는 21세기가 기다리며 뜻정치인들이 기다리는 역사의 물음에 주는 중대 정치대답이라고 하면서 겨례는 자기의 성벽에 조선의 령도자의 선군정치 진리를 대서특필하여 후세에 길이 전해갈것이라고 했다.

독창적인 총대증시, 군사증시 사상을 내놓으시고 비범한 선군령도로 공화국을 세계적인 군사강국, 핵보유국의 지위에 올려세우신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업적은 조국청사에 길이 빛나고 있다.

사회주의는 인민들의 리상이고 생활이다. 사회주의의 길에서 인간의 존엄과 권리가 향유되고 사람들의 리상과 행복이 마련된다.

사회주의는 지키면 승리이고 버리면 죽음이라는 것이 이 나라 인민이 실생활을 통해 절감하는 진리이다.

어버이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한평생 이어오신 사회주의의 길을 오늘은 경애하는 김정은 최고령도자께서 숭고한 인민 사랑의 정치로 변함없이 이어가신다. 인민의 리익과 편의를 최우선, 절대시하시는 그이의 숭고한 덕망과 인덕정치에 의해 인민증시의 시책들을 배려가 끊임없이 베풀어지고 있는 것이다. 만

난시련을 이겨낸 인민이 사회주의 부귀영화를 마음껏 향유하도록 하려는 것은 김정은 최고령도자의 확고한 결심이고 의지이다.

그이의 령도따라 한치의 드림도 없이, 한걸음의 양보도 없이 오직 곧바로 가는 자주의 길, 선군의 길, 사회주의의 길에서 사람들은 자자손손 복락할 민족의 백년대계를 끝판하고 있다.

본사기자 리설



보천보전투를 승리에 이끄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깊이 체득해간다.

—조선혁명박물관에서—

유명한 사건이나 사실일수록 그 여운이 오래가는 법이다. 지난 주체 100년사의 갈피에 투렷이 새겨진 항일대전의 나날에 있는 보천보전투가 그러하다. 지금으로부터 어언 일흔다섯해전에 있은 군사작전이지만 지금도 그것이 시사하는 의미는 자못 크다.

강도일제의 야만적인 식민지통치밑에 해가 솟아도 빛을 모르고 철철야밤과 같은 어둠의 질곡속에서 신음하던 우리 겨례에게 희망의 찬란한 서광으로 빠져진 잊을수 없는 6월의 불길인 것이다.

당시 일제는 조선민족의 넋을 빼앗고 조선이란 말자체를 없애버리려고 그 어느 때보다 발광적으로 책동하였다.

사람이 살지 못할 인간생

밀부리채 뒤흔들고 온 민족에게 펼승의 신념을 안겨준 혁사적폐거였다.

보천보전투는 대포나 비행기, 맹크같은 장비도 없이 진행한 자그마한 싸움이였으며 보총과 기관총에 선동연설이 배합된 보통의 습격전투에 불과했다.

그러나 전쟁이나 전투의 가치는 그 규모나 파괴력, 살상력에 의해서만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천보전투는 투렷이 확증해주었다.

지리한 예속의 밤을 불사르며 수령님께서 활활 지펴울리시여 쿠우위수이산(구시산) 전투와 지엔싼봉(간삼봉) 전투로 이어진 보천보전투는 일종의 폐기물 같은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었다고 쓰이였다.

해와 달도 빛을 잃어가던 조국땅에 있어서 보천보에 타오른 불길이 암말로 민족운명의 재생을 예고하는 서광이었으며 흥악한 침략세력을 조조리 초도회화비를 반체자주의 해볼파도 같았다.

당시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는 북부조선에 유격대진

를 몰아내고 반드시 통일을 이룰수 있다는 신심의 불을 달아주었다.

조국통일을 기어이 성취할 의지를 지니신 장군님의 판문점시찰에 대해 세계는 1930년대 김일성주석의 보천보전투와도 같은 사변적의의를 가지는 장엄한 폐거라고 격찬하였다.

조선은 죽지 않고 살아 있으며 조선의 정신도 살아있다고, 나라가 해방되는 날 다시 만나고 손을 들어 연설하시던 수령님의 모습 그대로 경에 하는

김정은 최고령도자께서는 지난 4월 성대한 열병장광의 단상에서 전체 인민들에게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라고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대를 이어 절세의 애국자, 민족의 위대한 어버이를 모시여 항일의 나날 사랑하는 조국산천, 겨례의 마음속에 둘을 가시여준 보천보의 해불은 지금도 강성국가건설과 조국통일위업의 밝은 앞날을 예고해주는 신념의 불길, 승리의 상징으로 활활 타오르고 있는 것이다.

선군정치는 혁명적 군인정신을 시대 정신으로 내세우고 부강한 조국건설의 튼튼

우리 집은 대대로 탄을 캐는 탄부의 가정입니다.

시아버지도 탄을 캐고 남편도, 총각인 시동생도 모두가 탄부입니다.

한생 석탄이 묻은 땅에 입을 입고 사는 우리 가정에 열마전 경사가 났습니다.

글쎄 소학교에 다니는 우리 아들 영석이가 평양에서 열리는 조선소년단창립 66돐 경축행사에 대표로 참가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10살짜리 우리 아이는 너무 좋아 밥도 안 먹고 동네방네 뛰여다닙니다. 자기

차량을 소꿉친구들에게 신기하고 너 정말 좋겠구나 하고 동네어른들이 기뻐하며 하는 말들을 들을 때마다 어머니로서 가슴이 찌릿해집니다.

우리 애가 공부를 잘하면 얼마나 잘하고 잘나면 또 얼마나 잘났습니까.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산골마을 소학교에서 글읽는 법을 배우고 보면 아버지처럼 탄을 캐겠다고 말하는 탄부의 자식입니다.

그런 자식이 국가에서 성대하게 진행하는 행사에 대표로 뽑히었으니 요즘은 잠자리에 누워도 잠이 오지 않습니다. 정말 꿈만 같습

니다.

이번에 이런 영광,

시아버지도 탄을 캐고 남편도, 총각인 시동생도 모두가 탄부입니다.

한생 석탄이 묻은 땅에 입을 입고 사는 우리 가정에 열마전 경사가 났습니다.

글쎄 소학교에

다니는 우리

아이들이

이제는

우리

집에

온라인

에 올라와 성대한 국가행사에도 참가하게 되었으니 정말 우리 세상은 로동자의 세상이고 인민이 주인된 세상입니다.

지금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야기합니다. 온 나라가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세상이라고, 다른 나라들 같으면 이런 꿈 같은 일이 있을 법한 일인가고, 김정은동지의 인민 사랑에 눈물이 난다

고…

이런 일도 있습니까

마경 대학원을 찾았을 때에는 원아들의 불도 다독여주시며 함께 기념사진도 찍어주시고 초도에 가시여서는 군인 가족들도 몸가까이 불러주시며 사랑의 넓은 품을 안아주시고 로동자들을 위해 현대적으로 꾸려진 강성원을 찾으시여로

동자들과 뜻깊은 기념사진도 찍어 주신 자애로운 김정은동지, 인민들이 즐기워하는 모습 그려보시며 강바탕으로 모래밭을 놀아나는 어린 친구들이 놀고 있는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등가는 한시에

동자들이 놀고 있는 모습

그 일등자는 김정은동지의

경우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일등자는 김정은동지의

자리잡은 만수대지구의 살림집들을 인민들이 기뻐하도록 최상의 수준에서 완공할 때 대 한 사랑의 가르침이 주신 우리의 어버이.

세상에 령도자는 많아도 인민을 제일로 위하시고 인민을 중심으로 모든 국가정사를 펴는 사랑의 정치가, 참다운 인민의 령도자는 경에 하는 김정은동지의 눈물이 난다

고…

소가 어버이로 부르며 따르지 않으며 그이 품에 어루만지듯 안기여

감격의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아직은 부족한 것이 많고 배불리며 풍족하게 쓰고 살지는 못하지만 우리에게는 이 세상이 못 가진 가장 큰 힘, 제일 커다란 재부가 있습니다. 그 힘, 그 일등자는 김정은동지의

경우에 대한 사랑입니다.

태양의 열보다 뜨겁고 바다보다 더 넓은 위인의 그 사랑, 그 따사로운 품이 있어 내 조국이 일제이고 우리에게는 머지않아 강성국가를 이행성에 보란듯이 일떠세우고 야말것입니다.

심신탄광로동자 김현경

제미자주사상연구소 소장

제미동포 김현황이 『선

지난 5월은 전세계 근로자들의 명절인 5.1절이 있는 달이었다.

세계 각지에서 노동자들의 권리옹호와 생활향상을 요구하는 집회와 시위들이 벌어지고 노동자들의 목소리와 생활처지가 여론의 주목을 끌었다.

이 5월에 공화국에서는 평양의 중심부에 새로 홀륭히 일떠선 인민극장에서 5.1절을 축하하는 은하수음악회 『장군님식솔』이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온 나라가 즐거움에 넘쳐 TV로 지켜본 음악회에는 김정은 최고령도자께서 몸소 참석하여 공연을 더욱 뜻깊게 했다. 그날 주석단 관람석이 아닌 보통사람들이 앉는 평범한 의자에 앉으시여 노동자, 학생, 대학생들과 함께 박수도 쳐주시고 기쁨의 미소도 지으시던 최고령도자의 모습을 우리로 누구나 감격을 금치 못하였다. 그것은 국가행사라기보다 한 가족의 행복한 가족오락회를 방불케 하는 것이었다. 한 나라의 령도자가 이처럼 자그마한 격식도, 틀도 없이 인민들과 함께 어울리며 공연을 같이 관람한 데가 동서고금에 있어던가.

그날 최고령도자께서는 산간벽촌에 자리잡은 어느 한 공장의 노동자들도 찾아가시였다.

모두가 놀라고 감격과 기쁨의 탄성을 질렀다. 노동자들을 위해 이곳 공장에 새로 꾸려진 종합적인 봉사건물인 강성원은 너무도 사람들의 상상과 초월하는 것이었

5월에

북과 남에서 ...

다. 수영장과 물놀이장은 우리나라에 소문난 창광원의 수영장, 물놀이장에 비해서도 조금도 나무랄데 없었고 전자도서관은 김책공업종합대학의 전자도서관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싶었다. 그밖에 음악을 비롯한 그곳 종업원들이 노동자, 농민의 자식들이 최고령도자의 초청에 의해 평양에 올라와 조선소년단 창립 66돐 경축행사에 찍던 그 행복 넘친 모습을 세

월이 간들 어찌 잊을수 있겠는가.

뜻깊은 5월에 이 나라의 노동자들에게는 경사에 경사가 고리를 물고 겹쳤이다.

전국의 2만여명에 달하는 노동자, 농민의 자식들이 노동자도 최고령도자의 초청에 의해 평양에 올라와 조선소년단 창립 66돐 경축행사에 참

가하게 된다는 보도가 발표된 것이다.

온 나라가 감격으로 들끓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 이야기였다. 세상에 이런 일도 있는가고.

나이런 대표들을 위해 국가에서는 비행기를 퇴우고 특별차를 편성하였다. 바다에서는 섬에서 사는 아이

들을 태운 배들이 평양으로 향하였다.

평양의 5월은 말그대로 노동자들의 5월이었다.

그와 반면에 한지막을 이은 남조선에서는 5월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가.

생존의 권리 를 요구하는 노동자들의 파업과 시

의 분향소를 까부시고 강제 철거시키는 천인공노할 만행 까지 감행하였다. 오죽하였으면 노동자들이 『너희도 사람이나, 너희 아버지, 어머니가 죽었어도 이럴수 있나』며 거세게 항의하고 각계가 노동자들을 죽이다 못해 그 주검까지 짓뭉개다고 규탄했는가.

언제는 삶의 보금자리를 강제로 빼앗아 못해 그에 항의하는 철거민들을 폭력 배들을 내몰아 불태워죽이며 지금은 노동자들을 련속 죽음의 낭파리지로 내모는 살인 『정권』, 반인민적인 독재 『정권』이 바로 리명박 『정권』이다.

5월에 북과 남에 펼쳐진 판이한 두 현설.

사람들은 이 한달동안의 일을 통해서도 어느 사회가 진정 인민을 위한 세상이고 어느 정치가 인민을 위한 정치인가를 더욱 뚜렷히 절감했을것이다.

본사기자 김준경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보도 제999호

최근 피뢰보수당이 통합진보당의 『국회』 의원들을 『친북좌파』, 『주사파 빨갱이』로 몰아대면서 그들의 『국회』 진출을 막아보려고 갖은 책동을 다하고 있다.

『새누리당』 때들은 『종북주사파의 국회입성에 대한 철저한 대책』이니 뛰어들면서 통합진보당 소속 의원들을 제명하기 위한 그 무슨 『국회결의안』이라는 것을 조작해보려고 발광하고 있는가 보면 보수언론들을 비롯한 온갖 멀거지를

이처럼 자그마한 격식도, 틀도 없이 인민들과 함께 어울리며 공연을 같이 관람한 데가 동서고금에 있어던가.

피뢰보수당은 통합진보당사태에 깊숙이 개입하여 진보평적인 모략수동은 친미보수 세력의 재집권을 위한 현대판 『마녀사냥』이며 추악한 파쇼적정치례로이다.

다 아는바와 같이 4월에 있은 피뢰국회의원선거를 통하여 남조선에서는 통합진보당을 비롯한 진보세력인 물들이 전례없이 많이 『국회』에 진출하게 되었다.

이것은 『국회』의 파반수의석을 차지하고 독관치기를 하면서 친미사대적이고 파쇼적이며 반인민적인 악법들을 마구 조작해내던 『새누리당』을 비롯한 보수파거리들에게 있어서 커다란 타격

로 드러내놓았다. 피뢰검찰은 그 무슨 『조사』요 뭐요 하며 폭압무력을 동원하여 통합진보당의 당사 등을 수색하고 당원명단이 들어있는 컴퓨터봉사기들을 통제로 압수해갔는가 하면 그에 따라 진보적인 물들에 대한 수사돌음에 바차를 가하고 있다.

피뢰파당은 이러한 발

광적인 모략수동은 친미보수 세력의 재집권을 위한 현대판 『마녀사냥』이며 추악한 파쇼적정치례로이다.

다 아는바와 같이 4월에

있은 피뢰국회의원선거를 통하여 남조선에서는 통합진보당을 비롯한 진보세력에 대한 폭압무력은 천연히 말살하고 애련대도 실현하지 못하게 하여 올해 『대선』에서 진보집권에 유리한 국면을 조성해보려고 발악하고 있다.

그것은 또한 우리에 대한

국단한 적대의식을 드러낸 것

으로서 또 하나의 엄중한 도발이다.

남조선인민들이

동족과

이 아닐수 없다. 더구나 진보세력이 『국회』를 차지하면 저들의 대결과 전쟁책동에 제동이 걸리고 련북통일기운이 급격히 높아져 피뢰파당체제유지와 재집권에 불리한 정황이 조성될수 있는데서 심각한 위기감을 느끼고있다.

피뢰파당은 통합진보당사태에 깊숙이 개입하여 진보세력을 차지하고 폭압무력을 지리멸시하기 위한 각종 모략에 더욱 매달리는 한편 진보세력인물들의 『국회』 진출을 필사적으로 가로막아보려 하고 있다.

피뢰파당은 이번 기회에 남조선진보세력을 완전히 말살하고 애련대도 실현하지 못하게 하여 올해 『대선』에서 진보집권에 유리한 국면을 조성해보려고 발악하고 있다.

피뢰파당은 이번 기회에 남조선진보세력을 완전히 말살하고 애련대도 실현하지 못하게 하여 올해 『대선』에서 진보집권에 유리한 국면을 조성해보려고 발악하고 있다.

그것은 또한 우리에 대한 국단한 적대의식을 드러낸 것으로서 또 하나의 엄중한 도발이다.

남조선인민들이

동족과

만나 서로 의사소통하는것이 좋으면 좋았지 무엇이 나쁜가.

오늘 남조선에서 문제되는 것은 『종북』이 아니라 종미이다.

미국에 대한 맹목적인 추종과 종속적인 통맹관계로 하여 민족의 리익이 얼마나 높아나고 남조선인민들이 겪고있는 불행과 고통 또한 열마인가.

피뢰국회에서 쓸어버려야 할 세력은 다름아닌 『새누리당』 속족들과 같은 친미매국적들과 반통일대결광신자, 파쑈와 부정부패의 주범들이이다.

남조선 각계층은 진보세력에 대한 피뢰보수당의 모략과 파쑈적폭거에 각성을 높이고 강력히 반대, 규탄해나서야 하며 단합된 힘으로 보수파당의 재집권기도를 저지파란시키고 새 정치, 새 세상을 반드시 안아와야 한다.

주제 101(2012)년 5월 31일 평양

리명박 보수파당이 『5.24조치』란것을 들고나와 북남사이의 협력과 교류의 문을 꽉 닫아맨지도 어언 2년이 지나갔다.

『5.24조치』는 누구나 알듯이 리명박보수파당이 회세의 대모략국을 꾸며내고는 도적이 매를 드는 격으로 그 누구에게 『제재』를 준다.

미국에 대한 맹목적인 추

종과 종속적인 통맹관계로 하여 민족의 리익이 얼마나 높아나고 남조선인민들이 겪고있는 불행과 고통 또한 열마인가.

피뢰국회에서 쓸어버려야 할 세력은 다름아닌 『새누리당』 속족들과 같은 친미매국적들과 반통일대결광신자, 파쑈와 부정부패의 주범들이이다.

남조선 각계층은 진보세력에 대한 피뢰보수당의 모략과 파쑈적폭거에 각성을 높이고 강력히 반대, 규탄해나서야 하며 단합된 힘으로 보수파당의 재집권기도를 저지파란시키고 새 정치, 새 세상을 반드시 안아와야 한다.

주제 101(2012)년 5월 31일 평양

그러나 실제로 피해를 입은 것은 북과 협력을 하던 남조선의 많은 기업들이였다.

남조선연구기관의 초보적인 조사자료에 의하더라도 『5.24조치』 이후 남측이 회세의 대모략국을 꾸며내고는 도적이 매를 드는 격으로 그 누구에게 『제재』를 준다.

『5.24조치』는 누구나 알듯이 리명박보수파당이 회세의 대모략국을 꾸며내고는 도적이 매를 드는 격으로 그 누구에게 『제재』를 준다.

미국에 대한 맹목적인 추

종과 종속적인 통맹관계로 하여 민족의 리익이 얼마나 높아나고 남조선인민들이 겪고있는 불행과 고통 또한 열마인가.

피뢰국회에서 쓸어버려야 할 세력은 다름아닌 『새누리당』 속족들과 같은 친미매국적들과 반통일대결광신자, 파쑈와 부정부패의 주범들이이다.

남조선 각계층은 진보세력에 대한 피뢰보수당의 모략과 파쑈적폭거에 각성을 높이고 강력히 반대, 규탄해나서야 하며 단합된 힘으로 보수파당의 재집권기도를 저지파란시키고 새 정치, 새 세상을 반드시 안아와야 한다.

주제 101(2012)년 5월 31일 평양

해자는 남측의 남북경협 기업들이라고 까닭하고 있으며 『대북전문가』들은 현 『정부』가 1차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5.24조치』 해제를 내세우고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남조선통일부는 현재까지 경제협력업체들의 피해 실태에 대한 조사조차 하지 않고있으며 『정부』가 피해를 보전해 줄 의무와 방법은 없다.』고 하면서 『5.24조치』를 해제할 수도 있지 않았다.

이것은 저희들이 손해를 보더라도 동족에게 해를 끼칠수 있는 일이라면 무작정 해대는 대결혹심의 발로이며 죽는 순간까지 동족대결의 길을 끝까지 가려는 단말마적인 발악이다.

『5.24조치』는 북남관계를 폐쇄할 살한 리명박 『정권』의 범죄적인 동족대결 정책의 상징으로 려자에 기록될것이다.

본사기자 최명제

수치스러운 동족대결정책의 상징

당국의 『대북차단』 조치로 인해 지난해 말까지 193개의 경제협력업체가 폐업했다고 한다. 현재 1,000여개에 달하는 북과의 경제협력업체들 중 절반이 문을 닫거나 개점휴업 상태에 있다.

오죽하면 남조선의 남북경협 활성화추진위원회 위원장이 『한때 통일의 전령사로 불리우던 기업들이 존망의 기로에 서 있다.』고 철구하였겠는가.

남조선의 언론들은 『5.24조치』의 가장 큰 피해

평화와 통일의 시대를 힘차게 열어나가자

남조선 각계 단체들 시국호소문 발표

과 같이 밝혔다.

남북공동선언들을 철저히 행하는 것은 지금의 위기를 해소하고 평화통일과 민족번영을 이루하기 위한 유일한 출로이다.

리명박대재 『정권』을 심판하고 박근혜를 청산하는 것은 모든 진보세력 앞에 나선 시대적 과제이다. 단결하면 이기고 분열하면 망하는 진리를 새기고 반통일, 반민주, 반민족 『정권』이 다시는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투쟁하자.

리명박 『정부』의 집권 5년간 폭정으로 쌓이고 쌓인 분노를 터쳐 2012년을 기어이 승리하는 해로 만들고 평화와 통일의 시대를 힘차게 열어나가자.

본사기자 최명제

현대판 『마녀사냥』

『정권』, 『종북세력』으로 탄압하였으며 지어 생존권을 위한 파업이나 시위를 하여 『친북좌파세력의 탄동』이라고 부르짖었다.

이런 속에서 시위진압에 동원된 『경찰관기동대』 같은 폭압무력은 오히려 『격려온전』에 『포상금』까지 상으로 받고 반통일, 반민족적인 『대북삐라』 살포를 하여 보수단체는 『애국』단체로 끌어들여 『마녀사냥』과 함께 시위를 벌여온다.

리명박과 그 『정권』이 집권 첫날에도 그러했지만 말기에 와서 그에 더더욱 『대선』의 『반사리의』을 연기 위한 것이라고 하였다.

옳은 말이다.

『대선』을 불과 몇 달 앞둔 지금의 시점에서 리명박과 보수파거리들이 『내부의 종북세력이 더 큰 문제』, 출해가 『종북세력』을 운운하며 『정권』의 『반사리의』을 연기 위한 것이라고 하였다.

이에 대해 남조선민심은 리명박의 친인척, 측근들의 부정부패 행위와 민간인 불법

『종북세력』에 대한 탄압을 부리고 있는가.

이에 대해 남조선민심은 리명박의 친인척, 측근들의 부정부패 행위와 민간인 불법

『종북세력』에 대한 탄압을 부리고 있는가.

리명박과 그 『정권』은 이른바 『왕재간첩단』 사전이라는 것을 조작하고 그들이 『종북세력』에 대한 진보

어째서 무력증강에 극성인가

최근 남조선호전세력이 북침전쟁을 위한 무력증강책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얼마전 리명박《정권》은 《북의 위협에 대응》한다는 구실 밖에 백수십 억US\$에 달하는 자금을 들이밀어 미국으로부터 차세대 전투기와 공격용 직승기, 무인정찰기 등을 도입할 것이라고 떠들어댔다. 이에 앞서 남조선군부호 전세력은 앞으로 5년간 수많은 《국방예산》을 들여 순항미사일과 탄도미사일 등을 증강하려는 무모한 전쟁장비 종강계획까지도 작성하였다.

리명박《정권》과 군부호전세력의 이러한 계획은 남조선인민들에게서 짜낸 협세로 미군수독점체의 배를 불리워주는 친미사대행위이며 조선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엄중한 북침전쟁준비 계획이다.

알려진 것처럼 남조선의 보수당국은 집권초기부터 민족공조를 한사코 반대하면서 미국과의 《동맹강화》를 《최우선과제》로 내세우고 군사적결탁과 북침전쟁연습으로 친미사대정책, 동족 대결정책에 계속 매달려왔다.

뼈까지 친미에 절은 보수당국은 인

민들의 초보적인 생존권도 무참히 짓밟으며 미국산 소고기를 대대적으로 끌어들였는가 하면 천문학적 액수의 돈을 섭취바치면서까지 미국의 영구강점 을 구걸하는 등 추악한 사대굴종행위 를 끊임없이炕행하였다.

오늘 남조선에서는 실업내란과 국심 한 채 무기위, 민본의 후파로 하여 하루에도 수십명씩 자살의 낭떠러지로 내몰리고 있다.

남조선의 보수집권세력은 인민들의 생명이나 생활은 안전에 없이 저들의 정치적 잔명을 유지하기 위해 상전의 환심을 사는데만 급급하고 있으며 꿀수에 찬 북침전쟁야망을 실현하기 위해 미국의 반공화국적대시정책에 적극 종하고 있다.

실제로 남조선보수당국은 곧 떨어진 조통박신세가 된 오늘까지도 민심에 역행하여 위험물질이 드는 미국산 소고기수입을 계속 강행하고 있는가 하면 그 누구의 《공격징후》가 나타나면 선제공격한다는것을 광주로 한 무모한 선제타격작전계획을 세워놓고 증강된 전쟁장비들을 일선부대에 대대적으로 배치하고 있다.

얼마전에는 전쟁위험이 절은 서해에서 도발적인 해상사격훈련을 벌리었으며 미국과 악합하여 사상최대규모의 합동전투훈련까지 진행하는 광기를 부리었다.

이러한 무모한 북침전쟁연습과 무력증강책동은 위험천만한 조선반도의 정세를 더욱 격화시키고 학약고에 불을 다는것과 같은 위험천만한 망동이다.

현실은 전쟁에서 살길을 찾는 리명박보수집권세력과 같은 대결광신자들이 권력의 자리에 계속 있는 한 북남관계는 언제가도 개선될수 없고 이 땅에 전쟁밖에 터질것이 없다는것을 응변하고 있다.

군사적도발과 무력증강책동으로 그 누구를 위협하고 어찌 볼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산이다.

선군의 총대는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조금이라도 건드리는 자들에게 차비를 모른다.

남조선호전세력은 무모한 무력증강책동에 가져올 엄중한 후과를 명심하고 경계망동하지 말아야 한다.

김철호

뒤가 지저분하고 어지러워 속이 캐기는지 알수록 앞에서는 청렴결백을 자주 떠든다.

남조선에서 《새누리당》의 행동이 그러하다.

최근 《새누리당》은 19대

《국회》개원을 앞두고 통

합진보당의 일부 《국회》

의원 당선자들이 《불

법》으로 당선되었다고

며들면서 《국회》의 원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고

복잡소동을 퍼우고

있다.

이 당의 원내 대변인이라는

자는 《국회》모임에서 《자

격이 없는 사람》이 의원신분

으로 활동하도록 내버려두는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

라고 하면서 《(통합진보당

의 비례대표 당선자)재명결

의안은 19대 《국회》가 개원

되면 가장 우선적으로 처리

돼야 할것이라고 본다.》고

폐대를 둑구었다.

《새누리당》의 최고위원

들도 저마다 나서서 《마치

부정입학을 한것과 마찬가

지》라느니, 《(국회)에

《한나라당》의 본래는 절대

로 감출수 없다.

지금 《새누리당》의 거

리들은 언론사파업을 두고

《정치파업》과 《불법

파업》으로 오도하며 이 문제

해결에 대한 《국정조사》

및 《정치권》의 개입을 필

사적으로 반대해나서고 있다.

여기에는 민심을 대변하는

언론을 계속 권력장악의 수단으로

리용함으로써 파쑈

독재체제와 반역통치를 더

욱 강화하고 나아가서 《대

선》에서의 승리를 꿈꾸는

《새누리당》의 정치적 악우

이 숨겨져있다.

실제로 지난 4월에 진

행된 19대 《총선》때 《새누리당》

과 리명박《정권》은

보수세력의 재집권을 실현

할 목적으로 서로 공모결탁

하여 관권과 금권을 동원한

부정행위들을 헤아릴수 없이

저질렀다. 그것이 얼마나

팔목이고 범죄적이었던지

이번 《총선》을 계기로 남조

선인민들은 《새누리당》의 《폭력당》, 《도루메기

당》, 《부활된 차폐기당》이라는 오명을 또다시 붙여주었다.

그중 《부활된 차폐기당》의 오명을 받은 경위를 하나 되새겨보자.

이미 알려진것처럼 《새누리당》은 이번 19대 《총선》 때 비례대표후보를 《공천》

으로 소문난 《한나

라당》 때처럼 뒤풀으로

천문학적인 액수의 돈을 뱉어내고 《공천》을 했다는것이 어론의 한결같은 주장이다. 이렇게 불법으로 걸어들인 돈으로

《새누리당》이 이번 《총선》을 치른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이런 《새누리당》이 통합진보당의 그 무슨 《불법경선》을 운운하며 《국회》의 원자리에서 사퇴하라고 떠드는것이야말로 도적이 도적이야 하는 궤변이고 언어도단이다.

《차폐기당》의 오명을 또 다시 뒤집어쓰고 제 치지도 가려보지 못하는 《새누리당》이 아무리 청렴결백을 펼쳤더라도 그 누구에게 부정부패의 힘을 써 우려고 애써도 그것은 썩을대로 썩은 《새누리당》의 오물냄새만 퍼우는 결과로 될뿐이다.

본사기자 김응철

다른 당에서 제기된 사소한 문제를 놓고 《새누리당》

이 미처 《재판판》이나 뒷이 범죄시하여 여론을 오도하고 있지만 따지고보면 그들은 그 누구의 부정 《선거》에 대해 말할 자격도 체면도 없다.

현실적으로 지난 4월에 진행된 19대 《총선》때 《새누리당》과 리명박《정권》은

보수세력의 재집권을 실현

할 목적으로 서로 공모결탁하여 관권과 금권을 심사하는데 그치고 대수주보들은 심사조차 하지 않았다.

그것이 얼마나 로마나 풀적이고 범죄적이었던지 이번에 《총선》을 계기로 남조선인민들은 《새누리당》이 《폭력당》, 《도루메기

사상과 정치활동의 자유를 억압하는 《보안법》 철폐하라

남조선 시민사회단체들 억적폐당을 규탄

남조선의 로동해방실천련대(해방련대)와 《보안법》 폐지국민련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이 5월 23일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사상과 정치활동의 자유를 억압하는 역적 폐당의 탄압을 강력히 규탄하였다.

지난 22일 서울지방경찰청은 《보안법》 위반혐의로 해방련대 사무실과 봉사기관리업체 등을 강제수색하고 단체를 점거하였다.

검찰이 통합진보당에 대한 수색, 압수수색을 일으킨데 이어 경찰이 로동운동단체를 탄압한것은 명백히 진보운동, 로동운동동일을 노린 폭압행위라고 그들은 폭로하였다.

본사기자

그들은 《보안법》이 자본과 《정권》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고 하면서 이 악법이 제정되어 63년이 넘도록 존재하고 있는 것은 남조선 사회의 커다란 비극이라고慨叹하였다.

당국이 사상과 정치활동의 자유를 억압하는 《보안법》을 철폐하고 부당하게 체포한 사람들을 즉시 석방할 것을 그들은 폭로하였다.

본사기자

성원 4명을 체포구속하였다.

기자회견에서 발언자들은 해방련대에 대한 탄압은 민중이 주인된 새 사회를 위한

로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것

밟는 행위라고 단죄하였다.

검찰이 통합진보당에 대한 수색, 압수수색을 일으킨데 이어 경찰이 로동운동단체를 탄압한것은 명백히 진보운동, 로동운동동일을 노린 폭압행위라고 그들은 폭로하였다.

《보안법》 부, 쳐에 을산한 구석이 있다는것은 계란한 노릇이라고 하면서 각계

에서 《국토해양부인가, 국토해양부인가》라는 비난이 울려나오고있다고 사

설은 밝혔다.

사설은 국토해양부가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청렴교육 적극실시》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였지만 도무지 믿음이 가지 않는다고 하면서 그것은 부정부패 사건이 터질 때마다 발표한 내용이 꼭 같기때문이라고 조소하였다.

《정부》 부, 쳐에 을산한 구석이 있다는것은 계란한 노릇이라고 하면서 각계에서 《국토해양부인가, 국토해양부인가》라는 비난이 울려나오고있다고 사

설은 밝혔다.

사설은 국토해양부 직원들이 시공업체들을 계속 자국과 위협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받아낸것은 절대로 용납할수 없는 범죄라고 주장하였다.

《정부》 부, 쳐에 을산한 구석이 있다는것은 계란한 노릇이라고 하면서 각계에서 《국토해양부인가, 국토해양부인가》라는 비난이 울려나오고있다고 사

설은 밝혔다.

사설은 국토해양부가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청렴교육 적극실시》 장관을 해먹은 군부출신으로 군부독재의 강제집단인 《민정당》 창당의 발기자 등 파쇼독재체제에 기생하면서 독재자들을 섬겨온자들도 있다.

보는바와 같이 《7인회》에 속한 인물들은 하나같이 동족대결과 파쑈독재에 찌들대로 찌든 극우보수분자들이 있다.

격언에 사람의 됨됨을 알려면 그 주변 사람들을 보라는 말이 있다.

박근혜에게 정책조언을 주는 《7인회》의 면면을 보면 《미래권력》을 노리는 박근혜가 어떤 인물이고 그가 정치를 하면 어떤 정치를 하겠는가는 심문 가름이 가능하다.

본사기자 김정혁

《신송장, 민족의 회군》

지역기구 인터네트에 글 게재

동유럽 및 중앙아시아지역 주체사상과 선군정치연구협회 국제연합이 5월 19일 인터넷홈페이지에 《신송장, 민족의 회군》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과정으로 리명박은 위선자, 전쟁의 회군, 통일의 암적존재, 동족과의 대결광신자로 놀라워졌다.

특히 이자는 민족의 대국상을 당한 조선인민의 마음에 끌어당길 것을 하고 그들이 생명보다 귀중히 여기는 최고존엄을 걸고든것으로 하여 저주와 규탄의 대상으로 전락되었다.

이 외에도 리명박은 위선자, 전쟁의 회군, 통일의 암적존재, 동족과의 대결광신자로 놀라워졌다.

특히 이자는 민족의 대국상을 당한 조선인민의 마음에 끌어당길 것을 하고 그들이 생명보다 귀중히 여기는 최고

지난 4월 말 남포-평양바다물수송관이 완공되었다. 바다물수송관이 건설됨으로써 수수천년 서해에서 출렁이던 바다물이 평양의 한복판으로 흘러들게 되었다.

바다물이 평양으로!

이것은 또 하나의 사회주의 문명을 낳는 기적 같은 현실로 된다.

바다물이 흘러들으로 하여 시민들의 질좋은 먹는물과 생활용수에 대한 수요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먹는 물은 인류의 생존을 위해 필수적인 것이다. 끊임없는 인구 증가와 높아지는 문명수준에

평양의 한복판에 바다물이 흘러든다

의해 깨끗한 먹는물에 대한 수요는 날로 늘어나고 있다.

다른 나라들에서는 음료수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물소독에 각별히 힘을 넣고 있지만 그에 따르는 비용이 엄청난 것으로 하여 물값이 보통 비싸지 않다.

공화국의 과학자, 기술자들은 바다물을 가지고 녹은 원가로 물을 소독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였다.

우리 나라에서 생산하는

일반소금과 바다물을 다같이 이용하는 새로운 소독수제조기의 발명으로 지난 시기보다 물소독에 드는 원가를 대폭 줄이고 평양시의 모든 살ም집들과 공공건물들의 물탱크들에 사철 질좋은 먹는물을 보장할 수 있는 전망이 열리었다.

이번에 공화국에서는 인민들에게 영원히 물값을 모르고 질좋은 먹는물과 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서해의

바다물을 수송관을 통해 평양으로 끌어들일 목표를 내세우고 공사를 시작하였다.

세계적으로 먹는물의 긴장성으로 하여 나라간에 분쟁까지도 일고 있는 오늘 공화국에서는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위대한 인민사랑의 정치에 의해 먹는물 문제가 수도를 물방울에서 까지 완전히 해결되게 되었다.

평양의 한복판으로 흘러드는 바다물은 또한 인민들에

고 높은 정신력, 이악한 노력으로 1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공사를 완공하였다.

남포-평양바다물수송관이 부설되기 전까지 중앙동물원의 수족관들은 같아놓어줄 바다물을 술한 품을 들여 자동차로 날라왔다. 허나 이제는 발브만 돌리면 신선한 바다물이 수족관으로 흘러들게 된다.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는 통라곱등어판에도 꿈없이 출렁이

는 바다와 똑같은 환경으로 꾸려질 여유가지 형태의 바다물들이장에서는 평양에 앉아서도 해수욕의 꽤 감을 맛보는 인민들의 행복년 친웃음소리가 울려퍼질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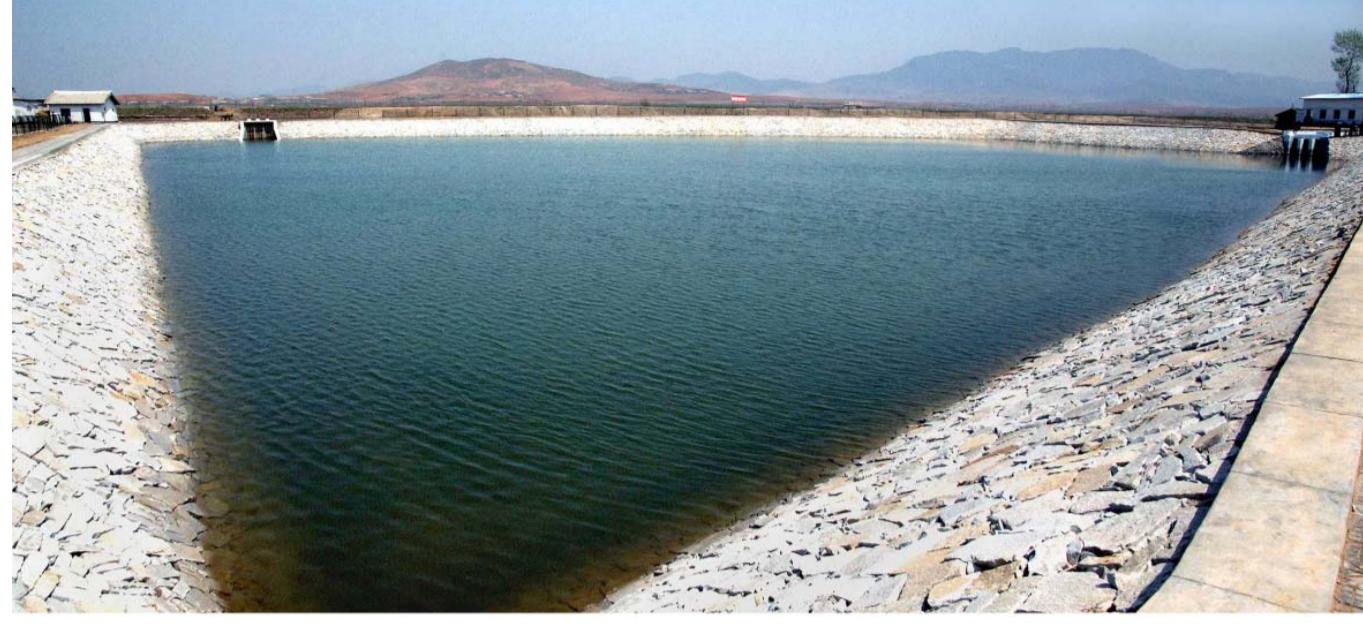
바다물은 각종 기초식품공장들에도 흘러들어 인민들의 식생활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기초식품생산에 필요한 소금을 앉은 자리에서 바다물을 통해 순쉽게 얻으니 얼마나 실리있는 일인가.

이처럼 효과있게 쓰고난 바다물을 다시 충분한 려파공정을 거쳐 대동강에 흘려보낸다. 그러면 대동강오염도 막고 하류에서 사는 물고기들에게 보다 유리한 서식조건이 마련되게 된다.

평양으로 흘러드는 바다물은 이렇듯 시민들에게 종전에는 보기 어려웠던 문명하고 행복한 생활을 마련하는데 기여한다.

바다물은 원천이 무진장하다. 신선하고 비릿한 바다물이 평양으로 사풀쳐 흘러드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인민들의 복리를 최우선, 절대시하고 이 세상 가장 행복한 사회주의 부귀영화를 안겨주시려는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의 마를줄 모르는 인민사랑을 가슴후덥게 절감하고 있다.

본사기자 박금일



남포-평양바다물수송관(침전지와 뺨프장)

바다물이 출렁일 르라곱등어관

여기는 통라도이다. 실실이 휘늘어진 능수버들이 구슬같이 맑은 대동강물결우에 비단필을 풀어놓은듯 하다고 하여 통라도라고 불리우는 이곳에 지금 바다물을 리용하는 끔등어판이 건설되고 있다.

진물외형이 마치 끔등어가 바다를 헤엄쳐가는듯 한 모양으로 특색있게 세워진 통라곱등어판은 1,460석의 판람석을 갖춘 공연장소와 공연관람에 필요한 온갖 편의봉사시설들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다. 끔등어판에는 가압밸브장과 물탱크가 건설되어 끔등어판에 언제든지 바다물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는 준비

적만 해도 수천㎡에 달하며 이외에 16개의 보조수조가 있다. 이 대형수조들에 바다물이 수송관을 통해 직접 공급되는 것이다.

서해의 항구도시인 남포를 떠나 바다물을 150여리구간의 수송관을 통과하여 평양의 만경대지구에 위치한 바다물공급소에 접결된다. 그곳에서 바다물을 다시 각지에로 뿐어간 수송관을 통해 통라곱등어판과 중앙동물원, 시내의 수원지들에 이송된다.

지금 통라도에는 가압밸브장과 물탱크가 건설되어 끔등어판에 언제든지 바다물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는 준비

가 완료된 상태에 있다. 강북판의 섬으로 흘러든 바다물을 재간을 퍼우는 끔등어들을 보며 희열파랑만에 넘칠 인민들의 기쁨의 한순간을 위해 나라에서는 그렇듯 많은 품을 들이고 있는 것이다.

在網 등어판옆에 건설되는 통라물놀이장 역시 바다물을 끌어들여 바다에서 해수욕하는 것과 같은 꽤 감을 안겨주는 문화휴식터이다.

얼마후 완공될 통라물놀이판에는 가압밸브장과 물탱크가 건설되어 끔등어판에 기쁨의 웃음소리가 울려퍼지게 될 것이다.

본사기자 리계명



중앙동물원 수족관에도

면 판을 통해 직접 바다물을 흘려드는 것이다. 원가도 적게 들고 실시간으로 신선한 바다물을 공급받기 때문에 바다물고기들의 서식에 여간 좋지 않다고 그는 웃으며 말하였다.

수십여년의 역사를 가진 중앙동물원 수족관에는 대평양과 대서양을 비롯한 세계의 여러 대양들에서 서식하는 수십여종에 달하는 희귀한 바다물고기들이 있다. 바

면 판을 통해 직접 바다물을 흘려드는 것이다. 원가도 적게 들고 실시간으로 신선한 바다물을 공급받기 때문에 바다물고기들의 서식에 여간 좋지 않다고 그는 웃으며 말하였다.

림철용책임기사는 수조들은 옆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그 뒤에는 서로 다른 서식조건을 요구하는 물고기들의 생태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거대한 장치들이 있다고 하였다. 조종실에서는 모든 수조들의 물온도와 산소함량을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필요한 온도와 조건을 자동적으로 보장해준다고 한다.

그런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게 되었다. 발브만 열

면 판을 통해 직접 바다물을 흘려드는 것이다. 원가도 적게 들고 실시간으로 신선한 바다물을 공급받기 때문에 바다물고기들의 서식에 여간 좋지 않다고 그는 웃으며 말하였다.

림철용책임기사는 수조들은 옆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그 뒤에는 서로 다른 서식조건을 요구하는 물고기들의 생태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거대한 장치들이 있다고 하였다. 조종실에서는 모든 수조들의 물온도와 산소함량을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필요한 온도와 조건을 자동적으로 보장해준다고 한다.

본전에는 운반차로 실어

온 바다물을 저장탱크에 저장했다가 가공하여 환수하고 그 물을 다시 정화하여 이용하였다. 그런데 이제는 수송관을 통해 신선하고 정화된 바다물이 나오니 수질조건은 물론 환수, 정화에 드는 원가가 훨씬 적어졌으며 물고기들의 서식환경과 물고기종수, 마리수를 더욱 높이고 판리를 과학화하는데 유리한 조건이 조성되었다.

오늘도 이곳으로는 수많은 사람들이 매일과 같이 찾아와 신선하고 비릿한 바다물을 속에서 뛰어드는 바다물고기들과 물개, 물범을 비롯한 바다동물들의 고예재주를 보면서 즐거운 휴식의 한때를 보내고 있다.

본사기자 박원평

물은 공기와 함께 인간이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될 필수적인 요소이다.

지금 세계의 곳곳에서 물자원의 부족으로 물값이 날이 갈수록 뛰어오르는 속에 많은 사람들이 오염된 물을 마시고 각종 질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다.

허나 공화국에서는 사람들

음료수소독문제를 빛나게 해결

- 국가과학원 413연구소에서 -

물소독설비를 연구개발하는 데 성공하였다.

그때 이 소식을 듣고 다른 나라의 어느 한 회사사장이 연구소를 찾아왔다. 그는 소독설비를 보더니 조선에도 이런 과학자들이 있었는가고 감탄을 금치 못해 하였다.

그후 연구소에서는 이 방법을 공용하여 수원지들에 도입하기 위한 대형설비연구제작에 달라붙었다.

소형단계에서 잘 운영되던 물소독기를 대형화하여 련속운전하는 과정에 전해조에 이상이 생기면서 물은 도가 올라가고 내부에 생긴 불순물의 영향으로 전해조가 터져나가는 등 많은 난관에 부닥쳤다.

연구사들은 물소독수설비의 구조와 방식을 무려 아홉 차례나 바꾸었다.

마침내 2008년 9월 9일, 공화국 창건 60돐이 되는 뜻깊은 이날 아침부터 평양시민들이 첨단물소독설비에 의하여 무균화된 깨끗한 물을 마시게 되었다.

그러나 소금은 의연 긴장하였다. 학교공업, 식료공업, 인민들의 식생활을 비롯하여 소금을 쓰는 분야가 대단히 많다.

누군가가 소금은 바다물에

독설비를 제작하여 리용하는 과정에 연구소의 과학자들은 새로운 문제를 포착하게 되었다.

그들의 연구는 조용한 실험실에서만 진행된 것이 아니었다. 보이지 않는 땅속에 수송관만 아니라 자기들의

에국의 땅도 함께 묻었다.

드디어 4월 8일, 평양바다물공급소에 물이 가당았다.

국가과학원 413연구소 과학자들이 의하여 바다물을 음료수로 깨끗이 소독함으로써 시민들의 먹는물과 생활용수문제는 완전히 풀리게 되었다.

충분히 리용된 바다물은 다시 려파공정을 거쳐 대동강에 흘려드는데 하류의 물고기에게 유리한 서식조건을 마련해 주게 된다.

가까운 앞날에는 평양뿐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주민들이 깨끗한 음료수와 생활용수를 리용하게 될 것이다.

바다물에 의한 물소독방법은 이처럼 강성국가건설에 큰 실리를 가져다주고 있는 자랑찬 연구성과인 것이다.

본사기자



어주시는 크나큰 후대사랑이 깃들어있다.

지난 3월 경에 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 얼음이 채 풀리지 않은 배길을 헤치시며 서해안전방초소를 지키고 있는 초도방어대를 찾아온 그날로부터 며칠 지나서

온 바다물을 저장했다가 가공하여 환수하고 그 물을 다시 정화하여 이용하였다. 그런데 이제는 수송관을 통해 신선하고 정화된 바다물이 나오니 수질조건은 물론 환수, 정화에 드는 원가가 훨씬 적어졌으며 물고기들의 서식환경과 물고기종수, 마리수를 더욱 높이고 판리를 과학화하는데 유리한 조건이 조성되었다.

오늘도 이곳으로는 수많은 사람들이 매일과 같이 찾아와 신선하고 비릿한 바다물을 이용하여 생활용수를

에 올라와 견학도 하고 야영생활도 하게 할데 대한 조치가 취해졌다. 그들의 출거문 평양경학의 나날은 이렇게 마련된 것이었다.

그은 정속에 초도의 학생들이 평양에 도착하여

이제껏 학생들은 학생들이 기대속에 흘렀다.

초도의 학생들은 김정은최고령도자의 크나큰 후대사랑속에 마련된 평양경학의 출거문 나날들을 영원히 잊지 않을것이며 정다운 평양의 모습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나라의 기둥감들로 얹세계 자랄것이다.

본사기자

우리 나라 도서, 사진 및 미술전람회

중국에서 전

행

개막식에서는 연설들이 있었다.

연설자들은 김일성주석 탄생 100돐에 즈음하여 난징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개최한 우리 인민의 투쟁성과를 소개하는 도서, 사진들, 그들의 창조적재능이 깃든 미술작품들이 전시되여 있다.

그들은 조중사이의 문화교류가 두 나라로 세세대령도자들께서 마련해주신 친선관계를 끊임없이 발전시키는데 적극 이바지하게 될것이라고 하면서 종조선은 영원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전람회장에는 난징시류허구인민정부, 류허경제개발구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하였으며 중국주재 우리나라 대사관성원과 이 나라에서 사업하고 있는 우리 일군이 초대되었다.

전람회개막식에는 난징시류허구인민정부, 류허경제개발구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하였으며 중국주재 우리나라 대사관성원과 이 나라에서 사업하고 있는 우리 일군이 초대되었다.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 배풀

에 올라와 견학도 하고 야영생활도 하게 할데 대한 조치가 취해졌다. 그들의 출거문 평양경학의 나날은 이렇게 마련된 것이었다.

그은 정속에 초도의 학생들이 평양에 도착하여

이제껏 학생들은 학생들이 기대속에 흘렀다.

초도의 학생들은 김정은최고령도자의 크나큰 후대사랑속에 마련된 평양경학의 출거문 나날들을 영원히 잊지 않을것이며 정다운 평양의 모습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나라의 기둥감들로 얹세계 자랄것이다.

본사기자

평양경학의 즐거운 나날에

이기께서 손저어주시는 바람에 쏟살같이 달려가 그이곁에 다가섰다는 이야기, 그이의 야전차바퀴자국이 찍힌 흙을 이전에 전해졌다. 그들의 출거문 평양경학의 나날들은 이렇게 마련된 것이었다.

그은 정속에 초도의 학생들이 평양에 도착하여

이제껏 학생들은 학생들이 기대속에 흘렀다.

본사기자

